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와 전망

정창현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

가만은 7월 26일 실시한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대의원 선거를 통해 총 687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지난 1990년 4월 22일에 실시된 제9기 대의원 선거 이후 8년 3개월만이다. 북한헌법에 규정된 대의원 임기는 5년이지만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임기 만료 후 3년 이상 미루어졌다. 대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99.85%로 발표돼 제9기 대의원 선거 때의 99.78%보다 약간 높아졌지만 큰 의미는 없다.

이번에 선출된 대의원 수는 687 명으로 제9기 대의원과 같다. 북한은 통상 인구 3만 명당 1 명의 비율로 대의원을 선출해왔기 때문에, 지난 8년간 인구가 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한 셈이다.

새로 선출된 10기 대의원의 직능별 분포는 정치 194 명(28.2%), 군사 81 명(11.8%), 사회문화 70 명(10.2%), 경제과학 124 명(18%), 기타 218 명(31.8%)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대의원으로 진출한 인물은 약 64%에 해당하는 449 명으로 확인되었다. 9기 대의원 선거 때의

31.4%(214 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숫자이다. 8년만이라는 기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전례없이 큰 폭으로 인물 교체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현상이다. 지난해 2월 황장엽 전 국제담당비서의 망명과 9월의 서관희 전 농업담당비서, 전 청년동맹비서 최현덕, 함운건 등이 공개 처형되는 정치적 파동을 겪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교체에서 드러난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현재 북한 당·정·군의 최고위 간부들은 큰 이변없이 재선출되었다. 이선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점쳐지던 박성철, 이종옥 등 부주석들도 모두 다시 선출되었다. 다만, 지난해 2월 망명한 황장엽과 그와 가깝거나 같은 라인에 있던 서관희 전 농업담당비서, 현준국 전 당국제부장, 김철명 전 노동신문 책임주필 등은 이번 대의원 선출에서 탈락하였다.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치국원이자 평남도당 책임비서였던 서운석의 탈락은 속

청된 것이 아니라 북한 관행상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는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장성택, 이용철, 정하철 등 김정일 현지 지도에 빈번히 수행했던 당중앙위원회1부부장들이 모두 대의원에 선출돼 실세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북한 최고위층이 이번 대의원 선거에 대부분 다시 선출된 것은 황장엽의 망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영도 핵심'과 '지도 핵심'층이 상당히 안정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김정일체제의 안정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더구나 김정일과 함께 성장한 인물들이 10기 대의원에 대거 선출되었다. 단순 인물 교체가 아니라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이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이다. 물론, 이것도 지난 2년간 인사 개편을 통해 상당 부분 예상된 결과이다.

1997년 1월 김정일은 개성시(강정옥→김창환), 평안남도(김낙희→박영훈), 양강도(김금순→심상구), 황해남도(허복덕→김보경), 황해북도(김영숙→최용선), 함경북도(최금선→김승진) 등 6개도(직할시)의 농촌경리위원장을 교체하였다. 교체된 인물들은 모두 50년대 농업 협동화 시기에 협동농장 작업반장·분조장으로 있으면서 앞장서서 협동화를 선전하는 역할을 한 60~70대의 여성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농촌경리위원장의 대거 교체는 농정 파탄 문책과 농업 생산 증대를 꾀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노령층인 여성 농촌경리위원장을 실무 능력을 갖춘 40~50대의 젊은 남성위원장으로 교체한 세대 교체의 의미가 크다. 즉, 50년대 천리마운동을 이끌었던 60~70대층을 퇴진시키고 70년대 3대붉은기쟁취운동을 주도한 40~50대의 능력있는 신진들로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은 1997년 후반 일부 도 행정경제위원장을 젊은층으로 교체하였고, 올해 들어서는 70대가 위원장으로 있던 민주여성동맹(김성애→천연옥), 직업총동맹(주성일→염순길), 농업근로자동맹(최성숙→송상섭) 등 대중단체장들을 40~50대로 모두 교체하였다. 새로 임명된 대중단체위원장은 모두 만경대혁명학원 4~6기 출신인 이른바 '혁명 2세대' 들로, 역시 70년대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이다.

이러한 흐름이 이번 대의원 선거에 반영돼 공장·기업소 직장장이나 기사장,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 일선 기관·단체의 실무급 간부 등 김정일시대를 뒷받침할 40~50대들이 대폭 총원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군부 인물들의 대거 진출도 눈에 띄는 현상으로 김정일의 빈번한 군부대 현지 지도로 역시 예상됐던 결과이다. 김정일의 측근으로 등장한 총치국 부총국장 현철해와 박재경이

나란히 선출된 것을 비롯 인민무력부의 주요 장성들이 10기 대의원으로 새로 발탁되었다. 군 핵심 인사의 대거 진출은 군부 중심의 통치체제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군 인사의 정치권 진출로 판단할 수 있다. 즉, 60~70년대에는 당 인사들이 대거 군으로 들어갔으나 이제는 역으로 군 인사들이 당·정으로 진출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군민 일치 정치', '군우대 정치'를 밀고 나가겠다는 김정일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1982년 7기 대의원(황해북도 송림시 선거구)에 첫 선출된 김정일은 8기(함경남도 용성), 9기(함경북도 무산)선거 때와는 달리 이번 대의원 선거에서 아예 군부대 선거구에 등록을 하였다. 김정일이 선출된 666호선거구는 인민무력부 본부중대선거구로 추측된다.

현재 북한 군부는 빨치산 1세대들이 물러나고 만경대혁명학원 1~3기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당과 정권 기관처럼 '김정일사람'으로 세대 교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와병·숙청설이 나돈 인물들은 대부분 대의원에서 탈락하였다. 와병 중인 강성산 총리, 김환 부총리 등과 숙청·경질된 김성애(전 여맹위원장), 서관희(전 농업담당비서), 현준극(전 당국제부장), 이봉원 대장, 최용해(전 청년동맹 제1비서), 김

달현(전 부총리), 김정우(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현철규(전 함남도당책임비서), 윤승관(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대남 관계 부서 간부들이 의외로 많이 탈락한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 가운데 정두환(조국전선의장), 정신혁(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정준기(조평통 부위원장) 등은 노령과 신병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권희경(당 대외정보조사부장), 리창선(사회문화부장) 등의 탈락은 지난해 나돈 당 대남 부서 개편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강주일(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사회문화부장으로 이동했다는 설도 있음)과 안병수(조평통 부위원장)은 대의원으로 선출돼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었다. 전금철(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림춘길(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은 이번에 대의원에서 탈락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직책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노령층을 대신해 새로 대의원에 진출한 40~50대의 장년층들은 70년대 김정일이 주도했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선도에 섰던 '혁명2세대'들로 김정일 통치의 핵심 기반이 되는 층이라는 점, 1994년 이후 북한이 표방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전투' 시기를 총화하면서 김정일이 직접 선발한 인물들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김정일은 이번 대의원 선거를 통해 자신

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층을 대거 전면에 내세웠으며, 철저하게 능력·기술·조직 위주로 인사를 하는 인사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10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지난 몇년간 진행해온 당·정·군에 대한 물갈이 작업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김일성 주석 사후 그동안 기형적인 형태로 움직여온 북한의 정치 행태가 정상적인 궤도에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대의원 선거 후 30 일 이내에 소집되는 1차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국가 기관 개편에 따른 인선, 1994년 이후 회의 미소집에 따라 밀렸던 예산 심의와 결산, 중요 법령에 대한 추인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공식으로 있던 당·정·군 등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개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가 주석을 비롯해 국방위원회(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서기장, 정무원 총리를 비롯한 각위원장·부장, 중앙재판소장과 중앙검찰소장 등이 공식으로 있다.

물론, 국가 기관 개편을 통한 중요 직책에 대한 인선은 사전에 당에서 심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1차회의 이전에 당전원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다. 당전원회의가 열리면 공식 또는

김정일이 겸직하고 있는 당조직비서, 당조직부장, 당검열위원장 등도 새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당조직비서는 전통적으로 차기 후계 구도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김정일의 국가 주석 취임 여부는 취임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년은 북한 정권 수립 50돌로 이른바 '격어지는 해'에 해당된다. 북한은 9월 9일 이전에 김정일의 주석 취임을 마무리하고, 이 분위기를 정부 수립일까지 연장해 대대적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온 사람들은 북한 간부들이 한결같이 김정일의 주석 취임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주석 취임과 관계없이 김정일은 당분간 당과 군만을 직접 챙기고 경제와 외교는 정무원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혁명2세대'를 중심으로 한 내부 정비를 끝낸 김정일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긴장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9호**

〈표〉 10기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탈락자 및 사유

성명	전직	사유
강성산	정무원 총리	신병
김성애	여맹위원장	경질
서관희	당농업담당비서	공개 처형
이봉원	총정치국 부국장	숙청설
최룡해	청년동맹 제1비서	경질
최현덕	청년동맹 비서	공개 처형(간첩 혐의)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	경질
현철규	함남도당 책임비서	문책 경질
김 환	정무원 부총리	신병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병(숙청설)
서문식	평남도당 책임비서	직책 변경설
전금철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미상
림춘길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	경질설
권희경	당대외정보 조사부장	경질설
리창선	당사회문화부장	경질설
정두환	조국전선 의장	고령(와병설)
정신혁	조평통 부위원장	고령(와병설)
정준기	조평통 부위원장	고령(와병설)
현준극	당국제부장	숙청
길재경	당국제부 부부장	경질설
손성필	전 러시아대사	경질
문성술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미상
윤승관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숙청설
김철명	로동신문 책임주필	숙청설
리두익	당군사위원	신병(숙청설)
황장열	당국제담당비서	망명
최성숙	농군맹 위원장	경질
주성일	직업총동맹	경질